

디지털 TV로의 전환: 새로운 디지털 장치가 필요할까?

웨이드 헨더슨(Wade Henderson) 작성

워싱턴 - 미국 내 대부분의 텔레비전 방송이 2월에 전면 디지털로 전환되면 이는 통신 기술의 한 단계 도약으로 기록될 것이다. 전국적으로, 기존의 아날로그TV 신호 송출 방식이 디지털 기술로 전환되는 것이다.

전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한 디지털 TV로의 전환은 영상(고화질)과 사운드가 크게 개선되고, 방송사의 멀티 캐스팅(하나의 아날로그 신호를 위해 사용되던 동일한 채널로 여러 개의 신호를 전송하는 방식) 능력 역시 크게 증대될 것이다. 장점은 그 뿐만이 아니다. 경찰, 소방서 및 구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통신에 사용할 수 있는 채널에도 더 여유가 있게 된다. 뿐만 아니라 차세대 무선 통신 기술 이용이 가능해진다. 멀티캐스팅은 더 많은 소수민족용 미디어 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.

그러나 심각한 도전이 따를 수도 있다. 어쩌면 새로운 디지털 장치를 만들어내야 할 수도 있다.

많은 미국인들이 케이블과 위성 TV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만, 수 백만 가구는 여전히 지붕 위 안테나와 실내 안테나에 의존해서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고 있다. 2월 17일에 대부분의 TV 방송국이 의무적으로 디지털 방송을 송출하게 되면 기존의 텔레비전 수상기로는 방송 신호를 수신하지 못한다.

당연히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커뮤니티이다. TV 시청자 조사 분야의 대표 기관인 닐슨(Nielsen)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는 놀라울 정도이다. 연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 가구의 12.5%와 히스패닉계 가구의 13%만이 현재 아날로그 TV를 이용하고 있으며, 디지털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. 또 연 소득이 2만5천 달러 미만인 가구들은 연 소득이 7만5천 달러 이상인 가구에 비해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5배나 높다.

닐슨이 조사한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보유한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목록에서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되었는데, 그 목록에 속한 지역 대부분이 소수 인종 인구 비율이 높았다. 예를 들면, 휴스턴 지역에서 전환 준비가 되지 않은 가정은 15.8%, 달라스 포트 위스는 14.3%, 털사는 14.1%, 솔트레이크 시티는 13.4%, 밀워키는 13.3%, 앨버커키-산타페는 12.7%, 미네아폴리스 세인트 폴은 12.0%, 오스틴 11.6%, 로스앤젤레스 11.6% 그리고 멤피스가 11.6%였다.

이런 데이터는 우울한 현실을 엄연하게 나타주고 있다.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폭넓은 지지 연합의 일부인 많은 저소득층 및 유색인종 커뮤니티들이 자기네 손으로 뽑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 행정부의 정책 시행이나 활동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것이다. 더욱이 미국 전체가 사상 유례 없는 경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수 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공공정책 변경에 관한 최근 소식과 정보에 접할 수 없게 될 것이다.

기업, 커뮤니티 및 시민 지도자들은 물론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TV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컨버터 박스를 구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.

정부에서도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. 디지털-아날로그 컨버터 박스 쿠폰을 이용할 수 있는데, 가구마다 컨버터 박스 구입을 위한 40달러짜리 쿠폰 두 장을 받을 수 있다. TV 종류에 따라 컨버터 박스 가격은 40달러에서 70달러 정도이다. 자세한 사항은 www.dtv2009.gov를 방문하거나 1-888-388-2009(음성)로 전화해 문의할 수 있다. 이를 위한 수속절차는 6주 가량 걸릴 수 있으므로 지금 쿠폰을 신청해야 한다.

민권 리더쉽 협의회(Leadership Conference on Civil Rights)는 협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집단 구성원들이 지속적인 TV 시청을 할 수 있도록 민간, 커뮤니티 및 정계의 각 분야 지도자들이 앞장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.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커뮤니티나 오피스 게시판에 홍보 전단을 게시한다.
- 뉴스레터, 게시판 및 신문에 광고를 싣는다.
- 주소록의 모든 사람에게 엽서나 이메일을 보낸다.
- 인근 학교에서 책갈피 북마크를 배포한다.
- 커뮤니티 차원의 디지털 전환 홍보 행사에 참여한다.

현재 아날로그 TV를 시청하고 있는 가구는 2,100만 가구이다.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대통령 당선 등 수많은 장애를 극복해 온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수 백, 수천만 명의 주민이 뉴스 및 정보원을 잃어버리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. 이는 엄청난 뒷걸음질이 될 것이다.

새로운 TV를 살 수 없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하다.

(글쓴이는 미국 최대의 민권 및 인권 연합인 “민권 리더쉽 협의회”의 의장 겸 CEO이다. 디지털 전환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.civilrights.org/dtv에서 볼 수 있다. 디지털 전환에 관한 언론 매체 인터뷰 약속은 앨리샤 잉그램(Alicia Ingram), 전화 404-493-1724로 연락하면 된다.)